

이재명·김경수 “내란극복 위해 힘 합쳐야” 한 목소리

국회 식당서 독대 형식 회동 가져 이 “복당 환영... 헌정수호 대연대” 김 “DJ, 죽이려 한 세력도 이울러” “팬덤정치 폐해 극복을” 쓴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전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식당에서 독대 형식의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선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당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을 확정했

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과 반민주 세력이 준동하는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큰 가치인 헌정 질

서를 유지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수호 세력,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헌정수호 대연대”라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길에 김 전 지사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통 큰 통합’을 위해 당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데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한다. 지사님 지적이 완벽히 옳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이루어려면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한 세력과도 손을 잡고 첫 번째

정권교체를 이뤘다”며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덤정치의 폐해와 온라인 소통구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당이 더 다양해져야 큰 목소리를 융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외에 당원들이 토론하고 참여할 공간이 많지 않은 당 시스템이 문제”라며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되도록 토론과 속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꾸는 것은 민주적 토론과 속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지원, 崔 대행에 “내란수괴 위해 짱구 노릇”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성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최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인연과 최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공부를 매우 잘해 이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천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느냐”며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

겠는가”라고 물어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아유가 나왔고 점차 언성이 높아지자, 박 의원도 “저보다 저기서 질문을 더 한다. 계속 떠드세요”라고 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조용히 하고 들으시라”고 1차 주의를 줬지만, 공방은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원이 다시 최 대행의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그게 천재들이 하는 답변인가.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쏘아붙이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성 항의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양측의 설전 수위는 높아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 지역화폐 13조원

민생회복·경제성장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 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 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000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학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광주·전남에 재생에너지특화단지 조성해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13일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과 차질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광주와 전남지역에 ‘재생에너지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해 7월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지적한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촉구한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산업자원통상부가 2월부터 호남권에 확보한 계통전력망 여유 용량 336MW에 대한 신규 접속을 호남권 신규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다행스런 변화로 지

정의원은 “재생에너지특화단지는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단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전기를 과소비하는 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예술인 창작 활동 침해 막는 법 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사진)은 13일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열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권리보장이 국민의 온전한 문화예술 향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명태균 측 “황금폰 저장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 이상”

명씨 법률대리인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140개 이상 저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창원교도소에 방문해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만약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응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의원과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도 나온다”며 “조만간 카카오톡 관련해 수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명태균을 사기꾼, 여론조사 조작범이라고 하지 않나.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런 명태균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